

# 60회 맞은 여수거북선축제, 31만 구름인파 '대성황'

전년비 방문객 41% ↑ ...지역 활기 1천967명 참여 '통제영길놀이' 장관 '물가안정 캠페인' 바가지요금 차단

여수시의 대표 역사·문화 축제인 '여수거북선 축제'가 환갑을 맞아 역대급 흥행 돌풍을 일으키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품 관광 축제의 위상을 다시 한번 굳건히 다졌다.

7일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이순신광장과 중앙동 일원에서 열린 '제60회 여수 거북선축제'가 총 31만명의 구름 인파를 동원하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이는 지난해 22만명 대비 약 41%나 급증한 수치로, 축제 기간 내내 도심 전역이 모여든 인파로 활기를 띠었다.



축제 기간 중 진행된 '통제영길놀이' 퍼포먼스 모습.

<여수시 제공>

'우리는 오늘, 이순신이다!'라는 슬로건 아래 열린 올해 축제의 백미는 단연 '통제영길놀이'로, 축제 시작 연도인 1967년을 상징해 1천967명의 시민이 참여한 압도적인 규모의 퍼포먼스는 전라좌수영 수군의 웅장한 기개를 완벽히 재현하며 관람객들의 탄성을 자아냈다.

이어 밤하늘을 수놓은 화려한 해상불꽃쇼와 나비 조형물 연축은 축제 분위기를 최고조로 이끌었다.

역사적 의미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맞춤형 프로그램도 호평받았다. 진남관에서 거행된 '전라좌수영 독제'와 전국 초·중·고등학생 대상 '도전! 이순신 골든벨'은 수군의 활약상을 생생하게 전달하며 교육적 가치를 더했다.

이와 함께 삼도수군 대권투 경연, 100주년 기념 관 등 풍성한 볼거리와 75개의 프리마켓, 지역 주민이 운영하는 8개 음식 부스는 지역 경제 활성화

에 효과 노릇을 톡톡히 했다.

이밖에 시는 축제 기간 바가지요금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순신광장 일원 푸드트럭과 주변 상가를 중심으로 '물가안정 캠페인'을 전개해, 안내문과 홍보 물품을 전달하며 ▲가격표시제 준수 ▲적정가격 유지 ▲친절 서비스 제공 등을 안내하고 자율적인 물가안정 동참을 요청했다.

또한 2026여수세계세탁박람회 캐릭터인 '다심이'를 앞세워 가격표시제 준수와 친절 서비스를 독려하며 관광객이 신뢰할 수 있는 건전한 소비 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섰다.

여수시 관계자는 "100주년이라는 뜻깊은 해를 맞아 한마음으로 축제를 빛내준 시민과 관광객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성공적인 개최 경험을 바탕으로 내년에도 철저한 물가 관리와 내실 있는 콘텐츠 기획을 통해 더욱 사랑받는 축제로 찾아뵙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진선 기자

## 장흥, 농산물 가공창업 고부가가치 창출 '앞장'

기초·심화교육 진행...96% 수료 재배 농산물 활용 실무 역량 강화 郡, 맞춤형 코칭반 운영 과정 지원

장흥군이 지역 농업인들의 가공 역량을 강화하고 창업 활성화를 이끌기 위한 '농산물 가공

창업 기초·심화 교육'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농가 소득 증대에 청신호를 켜다.

7일 장흥군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지난 3월4일부터 지난달 29일까지 총 9회에 걸쳐 진행됐으며, 교육생 25명 중 24명이 수료해 96%의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사진>

교육 과정은 식품가공 기술, 상품화 전략, 위생관리, 소규모 해썹(HACCP) 적용 등 실제

창업에 필수적인 핵심 이론과 실습이 병행됐다.

특히 참가자들은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활용해 레드향 잼·칩, 토마토 주스, 도라지·배 액상차 등 다양한 제품을 만들어보며 현장 중심의 실무 역량을 한껏 끌어올렸다.

이번 교육은 실질적인 창업 지원체계와 맞닿아 있으며, 교육 수료생에게는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의 장비 활용 자격이 주어지며, 공유주방 시스템을 통해 식품제조가공업 영업 등록 후 직접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다.

군은 제품 판매를 희망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코칭반을 운영해 제품 기획부터 품목제조보고, 표시사항 작성, 유통 및 판로 확보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박계현 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산물 가공은 부가가치 창출을 넘어 농가의 새로운 핵심 소득원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가공기술 교육부터 상품화, 창업, 판로 개척까지 연계된 체계적인 지원을 확대해 지속 가능한 농업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장흥=노형록 기자



## 고흥군 '스마트팜 청년창업' 인재 양성 나선다

郡, 오는 29일까지 교육생 52명 모집 우수 수료생 입주 자격·대출 등 혜택

고흥군이 미래 첨단농업을 이끌어갈 청년 인재 양성을 위해 박차를 가한다.

7일 고흥군에 따르면 스마트팜 분야 취업이나 창업을 희망하는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전남 7기' 교육생 52명을 모집한다.

신청은 오는 29일 오후 3시까지 스마트팜코리

아 누리집을 통해 접수하며, 적격·서류·면접 심사를 거쳐 7월15일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선발된 교육생들은 고흥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 총 20개월간 체계적인 집중 교육을 받으며, 입문 이론 교육(2개월), 전문가 지도하에 이뤄지는 교육형 실습(6개월), 직접 작물의 전 생육기간을 책임지는 경영형 실습(12개월) 등을 배우게 된다.

군은 청년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교육비를 전액 무료로 지원하며, 입문 기간에는 숙식비, 실습 단계부터는 월 70만원의 실습비를 별도로

지급한다. 또한 국내외 전문가의 밀착 기술 지도와 컨설팅도 병행된다.

수료생을 위한 든든한 후속 지원을 위해 우수 수료생에게는 혁신밸리 내 임대형 스마트팜 입주 자격(12·16명·최장 3년)이 주어지며, 청년 농업인 스마트팜 종합자금 대출 자격, 영농정책 지원사업 가점 부여, 신용보증 비용 우대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이밖에 군은 자원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8일 오후 2시 고흥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 현장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고흥군 관계자는 "스마트팜은 농업의 미래이자 청년들의 든든한 일자리 창출구"라며 "첨단 농업 분야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주성희 기자

## 담양군 '제47회 군민의 날' 행사 성료

조문익·김혜상 '군민의 상' 수상

담양군은 "최근 '제47회 담양군민의 날' 기념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하고 군민과 함께 지역의 희망찬 미래를 향한 새로운 도약 의지를 다졌다"고 7일 밝혔다.

담양대나무축제 주무대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이정국 군수 권한대행을 비롯해 국회의원, 자매결연도시 관계자, 재경향우회원, 군민과 관광객 등 80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사진> 기념식에서는 지역 발전에 헌신한 유공자들을 위한 뜻깊은 시상식이 진행됐으며, '군민의 상' 지역개발 부문은 마을 발전과 취약계층 봉사에 앞장선 조문익 이장이, 체육진흥 부문은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한 김혜상 군체조협회장이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향우회 화합을 이끈 이완신씨에게 특

여됐다. 이정국 군수 권한대행은 "군민 한 분 한 분이 담양 발전을 이끌어온 진정한 주역"이라며 "앞으로도 군민과 함께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통해 더욱 살기 좋은 담양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균 기자



## 장성교육지원청, 독서인문학교 '속수레 입학식' 개최

필암서원서 초·중학생 45명 참여

장성교육지원청은 7일 "전남 필암서원 집성관에서 관내 초·중학생 4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장성 독서인문학교 속수레 입학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성의 생애·역사·문화 공간을 직접 탐험하며 질문을 만들어간다.

이와 1박2일 과정의 '고고독서인문캠프'를 통해 독서와 토론, 창작 활동으로 사고를 확장하고 '세책레'로 전체 과정을 뜻깊게 마무리할 예정이다.

정선영 교육장은 "속수레 입학식은 학생들이 지역을 기반으로 한 인문학적 탐구의 첫걸음을 내딛는 뜻깊은 자리"라며 "앞으로도 우리 학생들이 책을 통해 사고를 넓히고 토론과 표현으로 자신만의 생각을 완성해 가는 장성형 인문교육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성=김태기 기자

## 구례군, 비료값 ↑ 대응 '적정시비 캠페인' 추진

농가 경영비 부담 완화 목표

구례군은 7일 "중등 분쟁 장기화로 인한 비료 가격 상승과 수급 불안에 대응해 '적정시비 실천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과학적인 시비 관리를 통해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덜고, 건강한 토양 환경을 함께 보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군 농업기술센터는 토양검정에 기반한 '비료사용처방서' 발급과 활용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

농가가 처방서를 활용하면 작물 생육에 꼭 필요한 비료량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 불필요한

비료 낭비를 막고 생산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다.

이울러 전문 '현장기술지원단'을 편성해 영농 현장 지도에도 나서며, 지원단은 비료사용처방서 활용법, 작목별 맞춤형 양분 관리 요령, 비료 대체 자원 활용법 등을 안내하며 농가를 돕는다.

구례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자재 가격 불안이 지속되는 만큼 과학적인 농업 경영이어야 하는 때다"라며 "경쟁력을 높이고 청정 구례의 농업 환경을 지키는 적정시비 실천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구례=김세중 기자

## "전남에서 살아보기"로 도시민 유치 시동

곡성군, 1기 참가자 간담회 개최

곡성군은 "최근 전남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 1기 참가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곡성의 주요 관광 자원과 특화 작물을 소개하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고 7일 밝혔다. <사진>

이번 1기 프로그램은 지난달 25일부터 오는 7월 25일까지 3개월간 운영된다.

참여한 57가구 7명의 도시민은 농촌에 직접 거주하며 영농 실습은 물론 지역 일자리 체험, 주민 교류, 재능 나눔 등 다채로운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군은 참가자들이 실제 농촌 생활을 생생하게 경험하며 지역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단계별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더불어 체류 경험이 실제 전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착 지원 정책과의 연계성도 강화해 실질적인 인구 유입을 이끌어낸다는 구상이다.

곡성군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참가자들이 곡성의 매력을 깊이 이해하고 안정적으로 적응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도시민들이 지역사회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곡성=김영철 기자